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31. 여섯째 인 천연계의 징조

2013. 08. 0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째 인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계속하여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6:12~17]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한 것을 시간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오늘 그 대답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천연계의 징조라고 한 현상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답: 지난 시간에 나는 이야기에서 큰 지진과 해가 총담 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큰 바람에 무화과의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참으로 계시록 6:12,13의 예언 성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지요?(예.) 그때 그런 현상이 있는 후로도 큰 지진이 많이 있었고 개기일식도 여러 번 있었고 월식도 있었는데, 또 지금도 사자 별자리 근방에서 주기적으로 별들이 쏟아지듯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현상을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그때 그 현상을 계시록의 예언 성취로 확신하는 것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런 현상이 나타는 시기의 일치입니다. 아무 때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언된 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계시한 바로 그 시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예언된 징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환난 후에 일어나야 계시록이나 복음서나 구약성경에 예언된 천연계 현상이 예언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76년에 큰 환난이 끝났고, 1780년에 해가 총담 같이 되는 일이 있었으니 당연히 성취된 징조입니다.

사실 그날 밤, 즉 1780년 5월 19일 낮에 해가 총담 같이 어두워졌고, 그날 밤에 달이 핏빛이 되어서 빛을 내지 않았습시다. 그냥 빨간 핏빛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당연하지요.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이 해가 어두워졌으니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무지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째, 성경이 예언한 순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지진, 해가 어두워짐, 달빛이 핏빛처럼 됨, 별이 떨어짐이 순서입니다. 예언된 순서대로 천연계 현상이 일어날 때에만 예언된 징조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연계에 성경이 말한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예언된 순서와 일치하지 않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언한 징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한 그때 있었던 천연계 현상과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도 그것이 계시록이 예언한 그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의 적합성입니다. 지역의 적합성이란 그런 천연계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성경이 예언한 징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징조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게 무슨 길조냐 흉조냐 하면서 소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아무 지역에서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예언된 징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을 때 우리는 예언된 징조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럽에서 개신교 핍박을 피하여 이민 간 청교도들이 오직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징조를 보고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지진과 해가 어두워진 것과 달이 핏빛이 된 것과 별들이 떨어진 것을 보면 이 조건에 완전히 일치합니다. 별이 떨어지는 일이 가장 나중이지요. 그것은 1833년 1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역시 청교도들이 사는 지역인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질문에 확실히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천연계 현상이 계시록 6:12,13의 예언 성취라는 것이 확실하군요. 그러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답: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은 아마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천연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뵤후 3:10을 읽어봅시다.

[뵤후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체질을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과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말은 묘사하는 말은 달라도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목사님, 하늘이 말리고 떠나간다는 것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답: 좀 그렇지요. 먼저 그 구절을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지요.

[계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예,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푸른 하늘은 대기층이 아닙니까.(그렇지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간다는 것은 이 대기층이 사라지는 현상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주인들이 성천권에 가면 하늘이 새카맣다고 하던데요. 공기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쳐다 보는 하늘이 푸른 것은 공기가 햇빛의 푸른색을 되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대기층이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재림하실 때 그 오염된 대기가 다 말려서 사라지게 되고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천연계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 목사님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으로 오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 당연히 아니지요. 살전 4:16,17에 보면 예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의인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리신다고 했지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살전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천년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이 지구에 생태계는 완전히 궤멸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영광에 불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후 1:6~9을 읽어봅시다.

[살후1:6~9]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으로 멸망한다고 했지요. 재림하실 때 이 지구의 모든 것이 궤멸됩니다. 그때 하늘도 큰 소리로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산과 섬들이 다 요동치고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 상태의 천연계 현상의 마지막이 되겠지요.

5. 흔히 하는 얘기로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군요. 그때 이 지상에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답: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살후1:6~9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영광과 그 얼굴의 빛으로 다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은 성도들은 다 공중

으로 끌려올라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아무튼 생물은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바로 15~17에서 보여줍니다. 계 6:15~17을 읽어봅시다.

[계6:15~17]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얼굴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불꽃같은 눈과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사르는 불이 됩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자기들을 보호해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주 자, 곧 종이 아니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동일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그 생명의 주께서 영광의 왕으로 위엄과 찬란한 광채로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산과 바위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에서 숨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거절했던 예수님, 아마도 특별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주의 창조주요 영광의 왕이신 것을 보고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 보기가 두려운 것이지요.

6. 예,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영광의 광채에 소멸되기 전에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군요. 아마도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충격을 받겠습니다. 어린양의 진노에서 피하기를 바라는 절규가 메아리치는 것 같은데, 어린양이 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요?

답: 사실은 그 사랑이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진노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로1:18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지요.

[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어린양의 진노를 느끼는 것은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왕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자주 자들이 아닙니까. 물론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열거한 부류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예수 믿는 길을 막는데 협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아무튼 이 무리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

는 일을 했고, 종들은 그들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의 진노의 날에 결코 능히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7. 그러면 진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다 담대히 어린양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답: 당연하지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눅21: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때 재림하시는 어린양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계6:15~17과 대조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25:8,9입니다. 읽어봅시다.

[사25:8,9]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다고 외치지요. 정말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무리 중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지 않으시면 성경의 약속이 거짓이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일이 됩니다. 십자가가 헛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림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확실히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따라 생활하기로 굳박한 사람들은 다 그날에 능히 설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외칠 때 우리가 능히 선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날 어린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그들이 외치지만 우리들에게는 고대하던 날이 되는 그날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진리대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서 막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생활하다가 함께 그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 성경의 이 말은 성경이 계시한 복음, 곧 구원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망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된 사람들을 진정한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하려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까?(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이 계시한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든 복음을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맞장구를 치는 기독교 신학이 다 원주의 신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종교와 신앙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지요. 기독교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서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요. 기독교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타협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주장을 슬그머니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고, 또 성경이 계시한대로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입니다.

9.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경이 계시한대로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답: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과 학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30년대에 있었던 유대인 바르 코크바의 로마에서 독립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당국은 유대인을 색출하여 처형하기로 했는데, 그때 유대인을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구별하여 체포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해받아 체포되었지요. 그러자 교회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레 중 첫째 날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말터는 그 날을 제8일이라고 했지요. 이런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이 계시한 제칠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헬라적 이원론이 교리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교리가 되었지요.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가 구교까지 다 이 두 가지 비성경적 교리를 신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은 것이지요. 이 계시에 임금, 왕족, 장군, 자주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부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열거된 부류들은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완전한 전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를 인간의 학문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정치와 사회적 영향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사람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0. 예,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애청자들께서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계시한 대로 바른 신앙생활하시면 복되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도 되지 말고, 막히는 자들도 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바르게 신앙하다가 그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중에 맞이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